

조선시대 궁궐 편액 복판의 단청 기법 연구

Analysis of Dancheong Technique Used in the Middle Tablets of the Royal Palace Plaque during the Joseon Period

구 옥 희*

Koo, Uk-Hee

(명지대학교 건축학 박사)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how dancheong for palace tablets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designed as related to what plans and what materials were being used. It also investigated how this unique culture forme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 First, the tablet dancheong unveiled through literature was designed using diverse techniques such as jinchaeh and yeokcheongchil. In jinchaeh, shell powder was applied to the tablet as the first lacquering, and then was colored. Second, in lacquer, maechil, chaesaekchil and jeohyeoptaechil were used. In yeokcheongchil, vegetable black, oil ash and perilla oil were applied to bitumen. Third, during the Joseon Dynasty, dancheong was applied to a tablet after first lacquering just like the danpihoe lacquering of Jiangsu Sheng, China. This tablet dancheong technique was developed based on a unique Korean lacquering culture that had been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주제어 : 편액, 진채, 옷칠, 역청칠, 단청

Keywords : Tablet, Deep-color pigment, Lacquer, Bituminous substance, Dancheong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오랜 기간 동안 扁額¹⁾은 건물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액에 사용된 단청 관련 재료가 기록된 문헌을 대상으로 재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편액의 단청이 건물의 위계를 어떤 기법과 방식으로 표현했

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형식의 편액이 출현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편액은 크게 판과 틀로 구성된다. 『奮武錄勳都監儀軌』에서는 편액의 판을 腹板으로, 테두리인 상하막이는 隅로, 좌우는 莫只로 구분하였다.²⁾ 본 논문에는 腹板을 중심으로 단청의 특성과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테두리의 문양 등 양식적 조사는 이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편액 단청에 사용된 재료의 사용처에 따른 분석을 통해 단청 기법의 종류를 구분하고자 한다.³⁾

* Corresponding Author : xkikib@naver.com

1) 현재 ‘懸板’이라는 용어는 건물에 글귀를 적어놓은 판을 총칭해 부른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살펴보면 건물의 명칭을 적은 글은 대부분 扁額으로 기록하고 있다. ‘扁額’은 『조선왕조실록』에 총 159회 기록되었으며, 慶會樓, 大成殿, 風月亭, 迎恩門, 勤政殿, 讀書堂 등 건물의 명칭에 주로 사용되었다. 또 ‘懸板’은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37회 기사에 기록되었으며, 15~16세기에는 시문을 적거나 글을 적어 거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18세기로 접어들면 ‘福內堂’, ‘壯南軒’, ‘得中亭’ 등 당호편액을 모두 “懸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扁額이 건물명을 적어 놓은 것이라면, 懸板은 시 등 긴 문구를 적어놓은 판을 의미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의 『恩誦堂集』에서도 “日本畫生南畹. 倩人索書扁聯. 因掇拾伊國舊事佚聞之雜出於記載者. 戲作七絕廿首. 以備竹枝一體.”라 기록된 7언 절구의 시를 懸板이라 부르고 있다.

2) 『奮武錄勳都監儀軌』, 1729(영조 5), “同月十九日甘結爲急急進俳事 御製懸板左右隅莫只所用假板二條當刻內邊俳爲乎…(戶曹繕工監).”

3) 단청의 도채 기술을 파악할 만한 자료는 대체로 15~20세기 초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며, 궁궐 영건의례류가 주종을 이룬다. 실록에도 더러 편액의 칠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의 내용으로 단청 시공 기술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례에는 건물의 영건에 들어간 재료의 목록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稟日秩』에는 각 장인별 필요 물품에 대한 기록, 『實入秩』에는 최종적으로 소요된 재료의 총량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물품과 비교해 어떤 물품을 어느 장인이 사용하는지

표 1. 문헌 기록에 따른 眞彩편액의 색상 유형

유형	연도	내 용	바탕(색)	글 씨	기 타	문 헌
1	1475	景福宮 勤政殿	靑	金箔	-	成宗實錄
2	1775	龍飛樓	紛	靑字	御製扁額	承政院日記
	1775	新 扁額	紛	靑字	龍飛樓 편액과 동일하게 제작함	承政院日記
	1775	慶熙宮 重光院	粉	靑字	-	承政院日記
	1781	奎章閣學士之署	粉	靑字	奎章閣(이전)	承政院日記
3	1821	孝元殿	墨質	金字	정조 魂殿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55	獻線閣, 萬壽門, 瑞和門, 景明門	墨漆	石紫黃	-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4	1805	孝安殿	墨質	粉字	정순왕후 魂殿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821	孝禧殿	墨漆	粉字, 丁粉, 眞粉	효의왕후 魂殿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5	1655	養志堂, 壽昌門, 凝慶門, 承慶門, 百祥門, 慈明門, 報安門, 報春門, 正肅門, 永暉門, 承教門, 延和門, 迎春門, 耀瑞門, 彩雲門, 衍慶門, 萬安門, 萬福門, 金華門, 肅金門, 瑞暉門, 同春門, 集慶門, 永和門, 映碧門	紛	墨	-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英祖	龍飛樓 皎月如燭 [御筆扁額]	紛	松煙, 墨	-	宮闕志, 慶熙宮志
	1904	朝元門, 用康門	紛	松煙, 墨	-	中和殿營建都監儀軌

또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액의 단청 제작 기술을 추적하고, 우리의 단청과 유사한 재료의 사용 기법을 비교·검토해 조선만의 특수한 제작 기술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역사건축기술연구소의 『궁궐현관 고증조사』 연구용역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궁궐의 正殿, 便殿, 寢殿, 大妃殿, 東宮 등 중요 전각의 편액은 모두 腹板에 옷을 칠해 다른 전각들과 위계에 있어 차이를 두었으며, 옷칠을 투명한 칠인 每漆과 불투명한 칠인 全漆로 구분하였다.⁴⁾

에 대한 공중의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체 물량 중 편액에 사용한 물품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4) 역사건축기술연구소, 『궁궐현관 고증조사』, 문화재청, 2015, 44쪽. 역사건축기술연구소는 옷칠이 검은 색을 띠는 불투명한 것과 맑게 투명한 것의 2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불투명한 옷이 全漆에 해당하며, 투명한 옷이 每漆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옷칠을 할 때 바탕에 먼저 全漆을 해서 검은 색을 띠도록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每漆을 해서 바탕이 윤기가 나도록 만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역사건축기술연구소는 萬壽殿 편액을 분석하면서 萬壽殿 편액 腹板은 骨灰를 사용해 바탕처리를 한 후 全漆을 발라 腹板에 1차 착색을 했고, 이후 글자에 倭朱紅을 바른 다음 다시 腹板 전체에 每漆을 발라 옷칠이 발현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의 책, 45쪽) 또 眞漆은 19세기 이후 궁궐 영건과 관련된 사례에 등장하였으며, 여기서는 따로 全漆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全漆이라는 재료명이 眞漆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每漆이 기존의 강원도에서 나는 칠의 일종이라고 서술한 것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 중 강원도에 대한 기록에서 강원도 산물로 全漆과 每漆이 등장하였으나, 『영종대왕실록정의』에는 每漆의 산지를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全漆과 每漆을 구하였으며, 『萬機要覽』에서도 강원·충청·전라·경

역사건축기술연구소는 墨質이라는 편액은 옷칠보다 위계가 낮은 전각에 사용한 칠로 설명하였다. 또 『慶運宮都監儀軌』의 편액엔 墨質편액이 거의 없이 모두 漆質을 사용했고, 중문은 모두 粉質을 사용해 편액 조성의 시대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⁵⁾

3. 편액 단청의 기법별 특징

3-1. 眞彩편액

(1) 眞彩편액의 종류와 사례⁶⁾

진채편액 중 유형 1의 경복궁 勤政殿 편액은 1471년 『조선왕조실록』에서 “靑 바탕에 金箔을 입혔다”는 기록⁷⁾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림 1>의 紫禁城 太和殿 편액과 색상이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 유형 2는 粉 바탕에

상도에서 구하고 있어, 每漆이 강원도에서 산출된 옷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全漆과 다른 성격의 옷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옷의 투명도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책, 46쪽)

5) 위의 책, 53쪽; 위의 보고서에는 1657년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의 내용 중 萬壽殿만 칠질로 腹板을 만들고, 위계가 낮은 春暉殿, 天慶樓, 百福軒 등 주변 전각은 腹板을 墨질로 만들었으므로 칠질이 墨질보다 위계가 높은 전각에 적용된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6) 여기서 墨 바탕에 金字 또는 紛字 중 재료에 松煙, 丁粉, 松脂, 蜜蠟, 明油, 油灰를 포함하고 있는 편액은 瀝靑漆편액으로 분류하였으며, 墨, 明油를 포함하고 있는 편액은 眞彩로 구분하였다.

7) 『朝鮮王朝實錄』, 1471년(성종 2) 7월 27일; “정진인 경복궁 근정전 편액의 바탕은 청색이고, 글은 금박이어서 탈락되고 퇴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과 같이 옷칠을 하고 동을 도금해 사용함이 어떠한지 아 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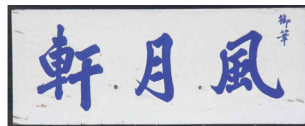
그림 1. [靑] 紫禁城 太和殿



그림 2. 敦化門 (『東闕圖』 중 부분, 1826~1830년 추정,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奎章閣學士之署



七宮 風月軒 (御筆)



長安門 (1910년대 추정)



현재 長安門 (1975년 중수)

그림 3. 현존 眞彩편액 사례

靑字를 넣은 편액으로, 大妃殿에 부속된 누각 건물인 龍飛樓⁹⁾란 어제편액을 본받아 세손의 講讀을 감독하던 重光院¹⁰⁾에도 사용되었다. <그림 3>의 '奎章閣學士之署'라 쓰인 규장각 현판 또한 粉 바탕에 靑字인 것으로 『承政院日記』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¹⁾ 또 <그림 3>의 七宮에 있는 風月軒¹²⁾ 또한 어필로, 粉 바탕에 靑字이다. 유형 3은 墨으로 바탕을 칠하고 金 또는 石紫黃으로 글을 넣은 편액이다. 孝元殿은 금자이며, 석자황을 입힌 4개소 건물 중 萬壽門, 瑞和門, 景明門의 3기가 문이고, 나머지 한 기는 獻線閣이다.¹³⁾ 유형 4는 정순왕후 김씨의 魂殿인 孝安殿과 정

8) 正宮인 紫禁城의 正殿인 太和殿은 靑의 康熙帝(1654~1722)때 세운 건물이다.

9) 『宮闕志』, 「慶熙宮址」; 경희궁 龍飛樓에는 어필로 만든 '皎月如燭'이라는 편액이 게판되어 있었고, 숙종이 지은 龍飛樓 시인 '肅廟御製龍飛樓詩'란 편액이 걸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皎月如燭'이란 어필 편액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0) 『承政院日記』, 영조 51년 3월 5일; 영조는 중광원에 대해 내가 어릴 적 책을 보던 곳이라 하며 '記懷'로 시작하는 글을 지어 편액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글은 음각하고 粉칠에 三靑으로 만들고 내외에 朱紅칠만 하도록 했으며, 중광원 대청 북쪽에 걸도록 하였다. / 『宮闕志』; 중광원은 "영종대왕 잡저 시 講學廳"이었고, 이때 만든 편액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편액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1) 현재는 바탕의 粉과 글의 청색이 퇴락된 상태이다.

12) 七宮의 재실에 걸린 어제편액

13) 궁궐의 전각은 殿, 堂, 閣, 閣, 軒, 室 등의 명칭을 붙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계의 순서를 나타내지만, 전각을 '魂殿'으로 사용하는 등 불

조의 비인 효의왕후 김씨의 魂殿인 孝禧殿으로, 粉 바탕에 墨으로 글을 넣은 것이다. <그림 2>의 敦化門의 편액도 粉 바탕에 墨字이다.

(2) 眞彩편액 단청의 채색 기법

현재 조선시대 편액 보수 과정의 眞彩¹⁴⁾칠 방법은 阿膠로 바탕을 포수한 후 靑色, 胡粉, 阿膠의 혼합액을 칠하고, 건조 후 阿膠로 마무리칠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¹⁵⁾ 중국의 『烟畫老北京360行』에는 眞彩편액 칠 기법을 '掃靑', '掃綠'이라고 하며 시공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글을 각자한 후 필획 위를 고르고, 셀락[虫膠漆]¹⁶⁾으로 초벌칠을 한다. 그 후 회를 나무의 틈에 채우고 평활하게 한다. 그 위에 다시 셀락을 칠한 후 연마하고 조색한 유칠을 한다. 칠이 건조되면, 잘 닦아낸 후 둥으로 만든 채로 고른 청색 또는 녹색을, 기름을 바른 위에 대나무 채를 이용해 가볍게 흔들어 안료 분이 고루 뿌려지도록 전체적으로 채운다. 글자의 고랑에는 胡粉을 이용해 채우고, 판을 뒤집어가며 필선 주위를 깨끗이 정리한다.¹⁷⁾ 여기서 우리와 다른 부분은 阿膠 대신 셀락을 바탕칠과 마감칠에 사용하는 것과, 기름을 안료 부착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 바탕칠 과정 중 안료와 胡粉을

여진 명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전각의 명칭이 위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4) 1801년 『華城城役儀軌』에는 二靑이 15냥, 三靑이 16냥, 唐朱紅이 5냥, 石雄黃이 5냥, 가칠에 쓰이는 礮朱紅은 1전2분에 불과해 안료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금값에 비금갈 만큼 고가였던 청색 안료는 궁궐 정전이나 중국 사신이 머물던 전각, 정자 등 격이 높은 편액의 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인공 청색이 생산되면서 청색 사용이 증가해 단청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15) 현재 우리나라 단청의 시공 기법은 먼 닦기, 아교포수를 시행하고 있다. 임영주는 과거 청토 바르기를 하였으며, 채색 바탕에는 호분을 도포해 바탕처리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임영주, 『단청』, 대원사, 1996, 99쪽) 조선시대 안료의 조제 과정은 기록을 찾기 어려워, 전통 회화 기법에서 조제 과정을 추정하면, 석채와 분채 등은 산지에 따라 수입해 사용하거나, 토채의 경우 채취해 수비를 거쳐 아교와 교합해 사용하고 있다. 기타 채색의 안정을 위해 白礬이나 龍鬚 등을 첨가해 사용하기도 했다. 단청 안료 중 기화안료는 불화 등 그림에 쓰인 것과 동일한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칠안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土彩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청의 마감칠로는 현재 들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단청 시공 시 아교는 겨울에는 물계, 여름에는 진하게 계절에 따라 농도를 增減해 사용한다. 또, 목 부재에 초벌칠을 할 때는 묽은 농도로 목재에 완전히 스며들게 포수하고, 채색에 교착제로 사용할 때는 강한 농도로 먼저 칠하고 상칠을 갈수록 약한 농도를 사용해야 도장의 탈락을 막을 수 있다.

16) 세화권집부, 『화학대사전』, 세화, 2001, "셀락[shellac, Schellack]"; 천연 수지의 하나로, 주로 인도에서 서식하는 라크 각지벌레의 분비물에서 추출한 수지로 표면에 얇고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고 나무의 결을 돋보이게 하는 마감재로 사용된다.

17) 李德生·苑煥喬, 『烟畫老北京360行』, 北京大學出版社, 2016, 掃靑(掃綠); 刷好的調合漆稍干, 就要將事先準備好的佛靑(或洋綠)顏料粉放到80日銅籬篩中, 把籬篩置于填油后的字体上方, 輕輕擺動籬篩, 使顏料粉均勻撒落, 粘附于油面上, 自然地填滿凹位.

표 2. 眞彩편액의 腹板 단청 기법 분석표

NO	1	2	3	4	5	6
유형	靑 바탕 金字	紛 바탕 靑字	松煙 바탕 金字	墨 바탕 黃字	墨 바탕 紛字	紛 바탕 墨
하층	확인 불가	阿膠, 炭	阿膠	阿膠	阿膠	阿膠
중간층	바탕층: 확인 불가 착색층: 石靑	바탕층: 丁紛 착색층: 墨, 明油	바탕층: 丁紛, 朱土· 倭朱紅 착색층: 松煙, 明油	바탕층: 丁紛, 黃丹 착색층: 墨, 石紫黃, 明油	바탕층: 丁紛 착색층: 眞紛, 墨, 明油	바탕층: 丁紛 착색층: 墨, 明油
상층	付金	明油칠	明油, 付金 (阿膠, 魚膠)	明油칠	明油칠	明油칠

교합해 사용하는 방법 또한 胡粉을 먼저 사용하고 안료를 도포하는 방법과 胡粉을 기름과 교합해 표면을 고르고 안료를 기름과 섞어 사용하는 유칠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바탕칠 재료 분석

바탕칠은 습기와 건조로 인해 목재에 발생한 수축으로부터 칠의 탈락과 변색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표 3>의 朝元門에 기록된 漳丹, 石紫黃, 洋綠 등 채색 안료는 문양의 채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炭은 문양을 넣은 부분의 바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炭은 <표 3>에 기록된 다른 건물의 편액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문양을 넣은 것으로 파악되는 朝元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炭을 채색 부분의 바탕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의궤에는 땀나무를 “燒木”라 기록해 연료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옷칠의 연마용으로 탄이 사용되나, 朝元門은 옷칠편액이 아니다. 또 채색용으로 炭을 아교와 혼합해 먹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¹⁸⁾ 문양을 넣는 막이와 테두리의 바탕을 고를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칠륜은 『漆工研究』에서, 이러한 처리 기법을 “朝鮮阿膠下地”란 명칭을 사용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阿膠 용액에 松炭의 미세한 분말을 혼합한 조선 특유의 바탕칠 기법이라고 설명하며, 습포해 마찰하고 계절에 따라 阿膠를 증감한다.”고 쓰고 있다.¹⁹⁾ <표 2>의 청색 바탕에 金字를 넣은 편액은 1475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편액으로 단청의 재료는 알 수 없으며, “진한 靑色 바탕에 연한 金으로 字劃에 붙였다.”

18) 朝元門 편액의 탄 사용량은 부피 기준으로 5되(升)로 반말(斗)에 해당하며, 쌀 기준으로는 대략 4kg(서울, 경기)~8kg(경상, 전라), 9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415쪽)

19) 이칠륜, 『漆工研究』, 미진사, 1984, 118쪽; 이칠륜의 이 책은 옷칠 공예품의 칠에 관한 내용으로, 단청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액의 제작은 여러 장인들의 협업을 통해 시공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현재 옷칠 장인의 재료 사용 방법을 파악해 그에 따라 본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3. 朝元門, 用康門, 東西行閣門 2좌의 ‘粉 바탕에 黑字 편액’ 칠 재료 (『중화전영건도감의궤』, 1904)

NO	안료명	朝元門 (外三門)	用康門	東西行閣門 2좌 (片懸板)
1	漳丹	5냥	-	-
2	石紫黃	4냥	-	-
3	洋綠	5냥	-	-
4	荷葉	2냥	-	-
5	洋靑	3냥	-	-
6	朱紅	4냥	4전	3전
7	丁紛	1근 반	10냥	10냥
8	眞墨	3정	2정	1정
9	松煙	1근 반	5냥	3냥
10	阿膠	3속	2냥	1냥
11	炭	5승	-	-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金을 붙인 글자의 바탕칠에 관한 기법이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萬壽殿과 天慶樓·百福軒에는 글의 바탕에 倭朱紅을 칠한 후 每漆하고 金箔을 입혔다고 하며, 복판의 뒷면에는 黃丹칠을 했다.²⁰⁾ <표 3>에 기록된 안료와 阿膠 등 재료 사용량을 보면, 위계가 높은 朝元門에 비해 위계가 낮은 用康門, 東西行閣門에는 적은 양의 안료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²¹⁾

20)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萬壽殿, “字畫着倭朱紅每漆後付金”, 春輝殿·天慶樓·百福軒(字畫着倭朱紅每漆後付金), 黃字(字畫着石紫黃), 墨字(字畫着墨漆). / 재료 대용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재료와 기법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해 현대 서각의 기법을 살펴보았다. 현대 서각의 바탕칠은 먼저 투명 래커를 칠해 건조시키고 붉은색과 고동색 수성 물감으로 먼저 바탕칠을 한 후, 글자 면은 물걸레로 닦아내고 다시 흑색과 나무색을 반반 섞은 후, 토분과 아교를 배합해 함께 끓인 후 2차 바탕칠한 후, 글자 면에 칠은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그 후 들기름 또는 호두 기름을 발라 마무리칠 한다. (유장식, 『文字造形世界: 현대서각 이론과 기법』, 이화문화출판사, 2013, 130쪽)

21) 각 편액의 크기에 따른 안료의 사용량을 가능하기 위해, 궁궐 편액의 기준으로 선택한 크기별 편액의 면적을 大·中·小로 구분해 朝元門, 用康門, 東西行閣門 2좌의 안료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4) 丁粉과 朱土 바탕칠

<표 2>의 3번 松煙 바탕에 金字 편액을 보면, 丁粉, 朱土, 松煙, 倭朱紅, 阿膠, 明油가 사용되었다. 이 중 倭朱紅은 전술한 바와 같이 金을 붙이기 전 글자의 밑칠에 사용하였으며, 丁粉으로 바탕칠 한 후 다시 朱土²²⁾와 松煙을 섞어 바르거나 朱土를 바른 후 松煙을 칠한 것으로 보인다.²³⁾ 우리나라에서 眞彩의 교착제는 阿膠와 魚膠가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靑漆과 綠漆 과정에는 阿膠를 바탕 고르기를 할 때 사용하고 오동나무 기름을 채색용 교착제로 사용하고 있다. 油漆의 사용으로 靑漆과 綠漆의 내구성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²⁴⁾

3-2. 옷칠편액

(1) 옷칠편액의 종류 및 사례

문헌에 기록된 다양한 옷칠 재료는 여러 종류의 옷칠 기법 사용의 증거이다. 이를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유형 1은 투명칠인 每漆만을 사용한 편액으로, 儲承殿 편액이 있다. 유형 2는 全漆·眞漆·每漆·太末 등이 사용된 편액으로, 寧陵 丁字閣·中和門·中和殿 行閣 및 各門·浚明堂·威寧殿·欽文閣·繼明閣·輯寧室·永福堂이 있다. 유형 3은 全漆·骨灰·太末·每漆이 사용된 편액으로, 大造殿·集祥殿·宣政殿·萬壽殿·熙政堂·明陵·瑤源殿·浚明堂·欽文閣·景孝殿에 사용되었다. 유형 4는 全漆·骨灰·太末·苧布·雪綿子·綿紬·每漆 등이 사용된 것으로, 顯思宮·通和殿 등 御筆편액에 주로 사용되었다.

<표> 각 문 편액의 복판 면적(mm²)별 안료량: 『궁궐현판 고증조사』 38쪽의 실측치를 참고해 작성함. (大: 中和門 / 中: 測泉門 / 小: 通和門)

면적(mm ²) \ kg/丁/束	朱紅	丁粉	眞墨	松煙	阿膠
大 / 3,364,000	0.15	0.9	3丁	0.15	3束
中 / 307,098	0.015	0.375	2丁	0.1875	0.075
小 / 266,220	0.009	0.375	1丁	0.1125	0.037

면적 비는 1:0.091:0.079이며, 朱紅 사용량 비는 1:0.1:0.075로 大 편액의 면적 대비 朱紅의 사용량이 中·小 편액의 10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丁粉 사용량 비는 편액의 크기에 비례한다. 腹板의 墨漆은 大 편액에는 眞墨의 함량을 높여 사용하고, 小 편액에는 松煙의 함량이 높다. 여기서 朱紅은 테두리인 隅와 莫只의 바탕칠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朱土는 철 성분이 들어간 붉은색 안료로, 황해도 지역에서 양질의 것이 생산되었다.

23) 단청에서 朱土는 石間朱가 등장하기 전 주로 사용하던 적색 안료이다. 그러나 朱土는 흙에 가까워 선명한 붉은색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松煙을 섞어 좀 더 선명한 색으로 만들어 단청에 사용하였다.

24) 油漆은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한 수성칠보다 부착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 5는 眞漆·骨灰·太末·雪綿子·炭·每漆·漳丹·熟銅·鍍黃金·苧布·阿膠·每漆이 사용된 편액으로, 동판을 주조해 글을 넣은 편액이며 높은 위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안료 및 교착제 분석

옷칠편액의 재료 중 全漆과 眞漆·每漆은 옷의 종류들이다. 이 중 每漆은 투명칠로 마감칠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⁵⁾ 또 全漆은 검은 옷칠인 것으로 판단되며, 眞漆은 옷칠이다. 재료 중 雪綿子는 옷을 정제하거나 貼金을 할 때 이용된다.²⁶⁾ 또 苧布는 太末이나 骨灰²⁷⁾로 바탕바름을 할 때 묻혀서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옷칠편액의 腹板칠에 쓰인 것으로 기록된 太末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감을 만드는 방법에서 콩의 사용법은 세 가지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즙으로 내어 포수용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콩가루로 만든 후 간수를 넣어 두부로 만들어 안료와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 骨灰·黃土와 같이 옷칠이나 松脂漆의 바탕그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昌慶宮營建都監儀軌』의 도배 물목에 太汁이 기록되어 있으며, 포수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西闕營建都監儀軌』에서는 太를 단청의 포수에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²⁸⁾ 『宋子大全』에서는 “관을 때울 때 松脂를 사용하는데 太末과 잘흙이 松脂보다 나으니 이를 사용함이 어떠한지”를 칭하는 내용이 있어, 太末이 목재의 틈을 메울 때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3) 바탕층 분석

유형 1의 松煙과 每漆은 每漆을 물계 희석해 포수한 후, 松煙과 每漆을 혼합해 칠하고 다시 每漆을 상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 2는 太末과 全漆로 포수하거나 骨灰와 太末로 목재의 틈을 메운 후 眞漆로 바탕을 칠하고 매질로 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 3은 太末로 포수하거나 骨灰와 太末로 목재의 틈

25) 구옥희, 「17세기 이후 궁궐단청기법의 재현을 위한 시험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76쪽; 慶運宮의 永福堂과 浚明堂, 卽阼堂, 昔御堂의 단청에는 眞漆과 每漆이 사용되었으며, 昔御堂은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임에도 창호 부분에 每漆을 사용하고 있어 투명칠로 판단하였다.

26) 『顯穆綏嬪宮魂宮都監儀軌』; 御筆賦金所入: 貼金一貼, 雪綿子三錢, 唐膠 / 漆質所入: 每漆三合, 糯襖二件(前排用還), 松煙二合, 骨灰·太末各一合, 家猪毛一兩, 雪綿子一兩.

27) 현대 공예 과정 중 土粉이 목재의 흡수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역할로 骨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西闕營建都監儀軌』; 丹青及假漆所入, …太一斗(泡水所入).

29) 『宋子大全』, 卷一百三, 「書」; 用松脂塗楹. 似爲填隙. 而有曾經者看得松脂卽時濃流. 不爲填隙. 用太末或眞土. 要爲久遠云. 太末眞土實勝於松脂. 則違禮換用亦不妨耶. 松脂與漆. 古今論者各異. 豈以土地之異宜而然耶. 太末眞土果勝於松脂則用之或可. 然莫或有使土親膚之嫌耶. 又土性引濕. 未知如何.

표 4. 옷칠편역의 기법 분류

유형	연도	전 각 명	채색	전 면	후면	글 자	마 감	문 헌
1	1648	儲承殿	松煙	-	-	金	每漆	儲承殿儀軌
2	1660	寧陵 (향대청 추정)	-	全漆·眞漆·太末·雪綿子	-	-	阿膠·魚膠·苧布	寧陵修改都監儀軌
	1904	中和殿 行閣 및 各門	-	眞漆·太末·雪綿子·炭	-	石紫黃·金薄	每漆·苧布·阿膠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906	浚明堂	-	眞漆·太末·雪綿子·炭	-	金薄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6	咸寧殿	-	眞漆·太末·雪綿子·炭	-	金薄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6	欽文閣·繼明閣·輯寧室	-	眞漆·太末·雪綿子·炭	-	金薄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6	永福堂	-	眞漆·太末·雪綿子·炭	-	金薄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3	1668	大造殿: 骨灰改漆	-	全漆·骨灰	-	-	每漆	集祥殿修改都監儀軌
	1668	集祥殿	松煙	全漆·骨灰	-	-	每漆	集祥殿修改都監儀軌
	1668	大造殿, 宣政殿, 熙政堂	松煙	骨灰·太末·全漆	-	-	每漆	集祥殿修改都監儀軌
	1655	萬壽殿	-	骨灰·全漆	黃丹	倭朱紅·金	每漆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1744	明陵 (御筆: 향대청 추정)	松煙	全漆·骨灰·太末	-	-	每漆	明陵改修都監儀軌
	1833	大造殿	松煙	骨灰·太末·全漆	-	-	-	昌德宮營建都監儀軌
	1901	濬源殿·正殿	松煙	全漆·骨灰·太末	-	魚膠·金薄·貼金	阿膠	濬源殿眞殿重建都監儀軌
	1904	通明殿	松煙	骨灰·太末	-	-	每漆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904	中和門	-	眞漆·太末·骨灰	-	金	每漆	中和殿營建都監儀軌, 匠役記綴
	1906	景孝殿	-	眞漆·太末·雪綿子·骨灰·炭	-	金薄·白紙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6	中和門, 浚明堂	-	眞漆·骨灰·太末	-	-	每漆·苧布	慶運宮重建都監儀軌	
4	1815	通和殿 (魂殿: 御筆)	松煙	骨灰·太末·雪綿子·襦袢	-	-	每漆·苧布手巾	獻敬惠嬪嬪宮魂宮都監儀軌
	1822	顯思宮 (魂殿: 御筆)	松煙	苧布手巾·炭·雪綿子·骨灰·太末·襦袢	-	-	綿紬手巾·每漆	顯穆綏嬪嬪宮魂宮都監儀軌
	1831	會祥殿·隆福殿·興政堂·集慶堂 (四殿堂)	-	全漆·雪綿子·綿紬	-	金箔	紵布	西闕營建都監儀軌
	1900	中和殿	松煙	全漆·骨灰·太末·雪綿子·明紬	-	-	每漆	匠役記綴
	1906	卽昨堂 (御筆)·慶運宮	-	眞漆·雪綿子·紅貢紗·炭·太末	-	唐朱紅·金箔	每漆·白苧布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6	昔御堂 (御筆)	-	眞漆·雪綿子·紅貢紗·炭·太末	-	唐朱紅·金箔	每漆·白苧布	慶運宮重建都監儀軌
5	1904	中和殿	松煙	眞漆·骨灰·太末·雪綿子·炭	-	熟銅·鍍黃金	每漆·苧布·阿膠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906	中和殿	松煙	眞漆·骨灰·太末·炭	-	熟銅·鍍黃金	每漆·苧布·阿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을 메운 후 松煙을 眞漆과 혼합해 腹板의 바탕칠을 한 후 每漆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유형 4는 羅紬를 붙여 칠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으로, 유형 2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수한 후 太末과 骨灰로 腹板의 틈을 메우고 阿膠·魚膠·漆을 이용해 羅紬를 붙인 후, 骨灰로 직물의 골을 채우고 松煙을 옷칠과 섞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⁰⁾ 마무리칠에는 每漆을 사용하고 魚膠를 이용해 金箔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西闕營建都監儀軌』에는 全漆, 金箔, 雪綿子, 苧布, 羅



그림 4. 慶運宮 (豆錫鐵片,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5. 勤政殿 편역 (銅字金鍍金)

紬, 每漆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四殿堂懸板漆所入”에 기록된 재료는 全漆·金箔·雪綿子·苧布·羅紬로, 每漆에 대한 기록이 없다.³¹⁾ 유형 4의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

30) 이와 같이 지지대인 목심을 넣어 칠을 하는 옷칠 기법을 ‘紵夾胎’ 기법이라고 한다. 이 칠 기법은 칠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칠에 심지를 넣어 제작하는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乾漆弗’ 조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사계절이 뚜렷해 온도 변화의 폭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목재의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칠의 탈락이 많이 발생해, 목재와 칠이 분리될 우려가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수축과 이완이 적고 강도가 큰 수종에 한해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1) 『西闕營建都監儀軌』; 四 殿堂懸板漆所入 全漆三升五合 金箔十四束 雪綿子一兩五錢。 / 四 殿堂은 慶熙宮의 會祥殿(내전의 정전), 隆福殿(침전), 興政堂(편전), 集慶堂(침전)의 네 전각을 가리킨다.

표 5. 옷칠편액의 칠 기법 분석표

기법	1	2	3	4	5
하층	阿膠	太末	太末, 骨灰	太末, 骨灰	太末, 骨灰
중간층	착색층: 松煙	바탕층: 全漆, 착색층: 松煙, 眞漆	바탕층: 全漆, 착색층: 松煙, 眞漆	바탕층: 全漆, 羅紬, 魚膠 착색층: 松煙, 全漆	바탕층: 全漆, 魚膠 착색층: 松煙, 全漆
상층	每漆 / 阿膠: 貼金	每漆 / 阿膠: 貼金	每漆 / 阿膠: 貼金	每漆 / 阿膠, 魚膠: 貼金	每漆 / 熟銅·鍍黃金

록되어 있는 <그림 4>의 경운궁 편액에는 ‘豆錫鐵片’이라는 칠편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³²⁾ 유형 5는 유형 3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글의 字劃에 따라 주조한 銅版에 鍍金을 해 못으로 고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5>의 경복궁 勤政殿 편액은 中和殿 편액의 동판 고정 방식과 같이 도금한 동판을 잘라 작은 못으로 고정해 제작된 편액 제작 방식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재의 덕수궁 中和殿 편액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金箔 붙임으로 어느 시점엔가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³³⁾

(4) 기타 관계 연구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에는 萬壽殿 편액의 후면 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옷칠편액의 腹板 바탕칠을 할 때 먼저 骨灰로 바탕을 고르고 全漆을 한 후 뒷면에는 黃丹칠을 하고 있다.³⁴⁾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에 기록된 편액의 椴板 전면에는 骨灰와 全漆을 하고 후면에는 黃丹칠을 하며, 글자에는 倭朱紅을 바른 후 每漆을 하고 金을 붙인 후 眞彩를 하는 것으로 상세히 적고 있다.³⁵⁾

문헌 기록을 보면 모든 편액의 후면에 칠을 한 것은 아니며, 중요도가 높은 편액을 중심으로 후면 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면 칠은 주로 黃丹 등의 붉은 칠을 했으며, 이것은 목재의 뒤틀림과 방충·방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에는 萬壽殿 편액의 字劃에 金을 붙이기 전, 倭朱紅으로 먼저 칠하고 金을 붙이는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³⁶⁾ <그림 6>의 顯思

宮 편액은 어필로, 네 번째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襦袱’은 솜을 넣어 만든 보자기로, 方紗紬를 취용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魂殿 편액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顯思宮 편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3-3. 瀝靑漆편액

(1) 瀝靑漆의 역사

瀝靑은 樂浪彩瑩塚에서 발견된 토기에 사용했을 만큼 그 유래가 깊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통해 瀝靑의 조성 기술을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大東野乘』에는 17세기 중종 때에 이르러 유입된 『唐本瀝靑方』을 통해 瀝靑의 조성 기술을 배우고 중국의 福建 지방에서 표류한 사람에게 그 기술을 물어 비로소 국가 기술로 상용화하였다고 쓰여 있다.³⁷⁾

문헌에 瀝靑은 陰宅의 棺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에서는 계급에 따라 관에 사용할 수 있는 칠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으며, 瀝靑漆을 한 瀝靑棺은 검은 옷칠을 한 全漆棺보다 등급이 낮았다.³⁸⁾

32) 역사건축기술연구소는 ‘豆錫鐵片’을 御筆 또는 예필로 제작한 고급 편액의 사용을 고정하기 위한 금속물로 판단하고 通明殿 내부, 景春殿 내부, 允執殿中, 昔御堂 1층, 慶運宮 편액을 그 사례로 보았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앞의 책, 2015, 265쪽)

33) 동판을 필선 모양에 따라 오려 붙이는 기법은 중국의 고급 편액에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34)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萬壽殿, “前面骨灰全漆, 後面着黃丹”; 天慶樓·百福軒, “前面着墨漆, 後面着黃丹”; 獻線閣·萬壽門·瑞和門·景明門, “前面着墨漆”

35)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萬壽殿 椴板 前面着骨灰全漆 後面着黃丹 字畫着倭朱紅 每漆後付金眞彩.

36) 지금도 금을 붙이기 전 황색 카슈칠을 해 금박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37) 『大東野乘』, 『稗官雜記』, 제2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瀝靑을 만들어 쓰는 방법을 몰랐다. 중종 때에 일찍이 漆匠을 중국에 보내어 배워 오게 했으나, 끝내 그 방법을 전해 받지 못하였다. 진사 조성(趙晟)이 『唐本瀝靑方』을 얻어 그대로 시험해 보았더니, 옷칠과 차이가 없었다. 그 뒤에 또 福建에서 표류해 온 사람에게 물어 보고 해서 그 기능자가 점차 中外에 퍼졌다.”

38) 또 폭약, 고약, 초를 만들 때에도 瀝靑을 이용했다. 『端宗實錄』, 1455년(단종 3) 6월 5일; 『牧民心書』, 「兵典」, 6조 중 제3조 修兵; 『山林經濟』, 제4권, 「雜房」

(2) 瀝靑漆의 특성

瀝靑漆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방수성이 높아 배의 방수 도료로 쓰이거나, 옥외용 도료로 이용되었다. 특히 나무와 성질이 잘 맞아 나무를 봉합한 곳에 瀝靑漆을 했다.³⁹⁾ 판자를 연결해 사용할 때 소나무의 안쪽 누런 부분 [黃腸]을 맞대어 판자를 만들고 틈새를 瀝靑으로 칠했다. 둘째, 칠 종류 중 가격이 낮아 옷칠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3) 瀝靑漆의 재료

조선시대 회곽묘에 칠을 할 때, 관의 외부 나무관 연결 부위에는 옷칠을 하고, 관의 안쪽에는 瀝靑漆을 했다고 한다. 회곽묘에는 솥을 가장 바깥쪽에 넣고, 삼물을 그 안쪽 얇은 판을 대고, 瀝靑을 3촌으로 칠하고 가운데 관이 들어가도록 했으며,⁴⁰⁾ 보통 瀝靑은 기름과 섞어 도료로 사용했다. 관에 사용한 瀝靑漆의 재료는 胡粉, 蜜蠟, 淸油⁴¹⁾, 松脂를 섞어 달여서 사용했다.

표 6. 역청칠의 조성

분류	재료	기타
瀝靑棺	松脂, 貝粉, 蜜蠟, 靑油	달여서 사용
柳成龍	松脂, 貝粉, 蜜蠟, 靑油	10:3:미량:미량
仁政殿	松脂, 丁粉, 蜜蠟, 明油, 法油, 松煙, 油灰	仁政殿重修儀軌

(4) 瀝靑漆편액 추정 의 근거

“瀝靑”이란 용어는 문헌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만, 재료인 松煙과 法油, 油灰가 편액의 腹板칠 재료에 쓰여 있어 瀝靑漆편액으로 판단하였다. 瀝靑漆은 조성 시 사용되는 재료가 다양해 상황에 맞게 재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주재료는 松脂과 貝粉으로, 蜜蠟과 靑油를 첨가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仁政殿重修儀軌』에 따르면, 편액의 腹板에는 松煙, 油灰, 丁粉, 松脂, 蜜蠟, 明油, 法油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이 중 丁粉·松脂·蜜蠟·明油·法油는 瀝靑을 만드는 재료로, 여기에 松煙

39) 『常變通攷』, 卷之七: 喪禮, 「初終」, 治棺

40) 『湛軒書』, 內集 4권, 「補遺」, 盤山問答; 『沙溪全書』, 제24권: 家禮輯覽圖說, 「築灰隔及內外蓋圖」

41) 『常變通攷』, 「淸油」; 해초(다시마)를 끊어서 채취하는 기름을 말한다. / 『萬機要覽』; 「眞油」가 어느 본에는 「淸油」로 되어 있음. / 『淸陰集』, 제5권; 淸油는 軍幕에 기름을 칠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淸油幕이라 하였다.

42) 『仁政殿重修儀軌』, 「實入」; 假漆匠·畫員(石問朱, 礪朱紅, 磊綠, 丁粉, 靑花, 眞粉, 唐朱紅, 唐黃丹, 常黃丹, 石綠, 荷葉, 石紫黃, 同黃, 二靑, 三靑, 片臘脂, 三蘇, 倭朱紅, 金箔, 阿膠, 法油, 明油, 油灰), 眞漆匠(眞漆, 骨灰, 膠末, 芎芎末, 羔鬚, 松脂, 松煙, 炭); 각 장인 순서별로 사용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인명에 따른 분류 없이 총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어, 필자가 각 재료를 장인별로 분류한 것이다.

과 油灰를 더해 편액의 腹板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油灰는 목재의 틈을 막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松煙과 瀝靑을 교합해 칠하거나 松煙을 먼저 사용하고 瀝靑칠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⁴³⁾ 문헌에 기록된 19세기 초의 인정진 편액의 腹板칠은 당시 시행된 瀝靑漆 기법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더 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당시의 칠 기법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腹板의 단청 기법 분류와 궁궐 전각의 위계

4-1. 칠 기법 분류

전각의 분석을 바탕으로 편액의 단청 기법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眞彩편액으로, 阿膠와 魚膠, 法油를 교착제로 사용한 편액이다. 둘째는 옷칠편액으로, 옷칠을 교착제로 사용하고 안료 등 기타의 재료를 첨가해 제작한 편액이다. 셋째, 松煙과 丁粉, 松脂, 蜜蠟, 法油 등을 포함한 瀝靑漆편액이다. 이 중 眞彩편액은 안료에 阿膠 또는 魚膠를 교착제로 사용한 후 法油로 마무리칠하는 사례와, 阿膠를 바탕칠에 사용하고 안료에 法油를 섞어 교착제로 이용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또, 옷칠편액은 투명한 每漆을 사용해 칠하는 기법과 바탕은 眞彩 또는 瀝靑漆을 하고 투명한 每漆로 마감칠 하는 기법, 바탕 고르기를 한 후 羅紬를 붙여 骨灰를 옷과 섞어 칠해⁴⁴⁾ 도장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瀝靑漆편액은 瀝靑漆만을 한 사례와 옷칠편액의 세 번째 방법과 같이 바탕에 羅紬를 붙여 骨灰를 한 후 옷칠해 도장한 두 종류로 구분했다.⁴⁵⁾

4-2. 궁궐 편액의 위계

예부터 사람들은 거주하는 공간을 실용적 역할과 함께 영적인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가 편액으로 건물의 명칭을 담는 것과 함께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⁴⁶⁾ 특히 편액은 문의 정면 상부에 건다.⁴⁷⁾

43) 구옥희, 앞의 논문, 2016, 183~185쪽; 『常變通攷』, 卷之七: 喪禮, 「初終」, 治棺; 서에 유성용은 瀝靑漆의 특성에 대해, “松脂 10분에 胡粉 3분과 蜜蠟과 靑油를 조금 더해 합한 후, 끊어 놓았다가 응고된 뒤에 물건을 가지고 두드리 보면 쟁쟁한 금속 소리가 나고, 성질은 매우 견고하고 온전하며, 장차 마르거나 갈라질 근심이 없으니, 松脂 한 가지만 쓰는 것과 달리 유익함이 있다.”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다.

44) 『常變通攷』, 卷之七: 喪禮, 「初終」, 灰漆; 工人은 骨灰를 써서 옷과 섞어 기물에 칠한다.

45) 그밖에 유칠 혹은 옷칠을 교착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다.

표 7. 궁궐 편액 腹板의 단청 (현황과 문헌 비교): 현황 기록 편액은 단청의 칠 기법에 대한 구분 없이 색 중심으로 기록함.

유형	바탕	글	사료			현황
			진 채	옷 칠	역칭칠	
1	靑	金	勤政殿	-	-	-
2	紛	靑	龍飛樓 皎月如燭, 重光院	-	-	奎章閣學士之署, 錫福軒, 壽康齋, 寄傲軒, 申門, 風月軒
3	墨	金	孝元殿	儲承殿, 寧陵, 中和殿 行閣 및 各門, 浚明堂, 咸寧殿, 欽文閣·繼明閣·輯寧室, 大造殿, 永福堂, 集祥殿, 宣政殿, 熙政堂, 萬壽殿, 明陵, 通和殿, 顯思宮, 瑤源殿·正殿, 通明殿, 中和門, 景孝殿, 浚明堂, 會祥殿·隆福殿·興政堂·集慶堂(四殿堂), 中和殿, 卽阼堂(御筆), 慶運宮, 昔御堂, 宣政殿(古)	仁政殿	勤政門, 集玉齋, 香遠亭, 協吉堂, 勤政殿, 思政殿, 慈慶殿, 慶春殿, 歡慶殿, 德弘殿, 歡慶殿, 通明殿(내·외부), 瑤源殿, 中和門, 中和殿, 千秋殿, 慶會樓, 康寧殿, 含元殿, 映花堂, 歡慶殿, 景春殿(내·외부), 允執厥中, 養和堂, 咸寧殿, 浚明堂, 卽阼堂, 昔御堂(1층), 顯思宮, 思無邪, 攸好室
4	墨	黃	獻線閣, 萬壽門, 瑞和門, 景明門	-	-	-
5	墨	紛	孝安殿, 孝禧殿, 文政殿	-	-	錫類門, 資始門, 望春門, 同仁門, 建春門, 神武門, 敦化門, 進善門, 肅章門, 宣政門, 弘化門, 明政門, 明政殿, 文政殿, 光明門, 仁政門, 廣臨門, 思政門, 響五門, 修政殿, 清讌樓, 貳極門, 崇德門, 美成門, 震化門, 吉爲門, 三備門, 敦化門, 金虎門, 曜金門, 迎賢門, 調和御藥, 保護聖躬, 緝熙, 永春門, 勝在亭, 清漪亭, 宙合樓, 魚水門, 書香閣, 弘化門, 彰信門, 龍德門, 毓祥廟, 德安宮, 冷泉亭, 松竹齋, 三樂堂, 湧泉門
6	紛	墨	養志堂, 壽昌門, 凝慶門, 承慶門, 百祥門, 慈明門, 報安門, 報春門, 正肅門, 永暉門, 承教門, 延和門, 迎春門, 耀瑞門, 彩雲門, 衍慶門, 萬安門, 萬福門, 金華門, 肅金門, 瑞暉門, 同春門, 集慶門, 永和門, 映碧門, 朝元門, 用康門	-	-	大漢門, 用成門, 求賢門, 重光門, 貽謨門, 丹鳳門, 長樂門, 寶蘇堂, 日華門, 月華門, 志道門, 萬歲門, 啓光堂, 清心堂, 壽慶堂, 景安門, 乃成門, 仁壽門, 延泰門, 體仁堂, 乃順堂, 承順堂, 恭默齋, 輔宜堂, 咸亨門, 萬通門, 財成門, 日中門, 戴瑞門, 弘景門, 保康門, 綺元門, 建吉門, 建武門, 宣政殿, 宣政門, 樂善齋, 承華樓, 上涼亭, 閒靜堂, 喜雨樓, 報春亭, 肅敬門, 金馬門, 愛蓮亭, 矜愚榭, 聚奎亭, 凌虛亭, 翠寒亭, 逍遙亭, 太極亭, 太一門, 兌正門, 紹休門, 芙蓉亭, 喜雨亭, 露月光風觀, 籠雲門, 登賢門, 月勤門, 宣仁門, 集春門, 崇文堂, 涵仁亭, 昔御堂(2층), 通和門, 延禧堂, 敷錫門, 昭有門, 觀光門, 惇德門, 綏成門, 含光門, 清熙門
7	錄	紛	-	-	-	觀纜亭
8	紛	丹	-	-	-	濃繡亭, 長樂門, 長陽門, 修仁門, 善香齋, 清水精舍, 通碧門, 韶陽門, 正秋門

46) 『篇額』이라 칭한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 顯宗 때 “신라사람 최언위를 대사자로 삼아 문헌의 임무를 맡겼고, 궁원을 모두 지어 정했다.”라는 내용이다. (『高麗史節要』, 권2, 惠宗仁德明孝宣顯義恭大王, 혜종 1년 12월); 편액을 “懸板”이라 칭한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 1138년(예종 13) 安和寺의 편액을 송나라 황제가 내려줬으며, 황제가 불전의 편액을 “能仁之殿”이라 쓰고 太師의 蔡京이 문액을 썼는데, “靖國安和之寺”라 써서 보낸 것이다. [『高麗史節要』, 권8, 睿宗文孝大王(2), 무술 13년(1118)] / 중국의 『說文解字』에는 “扁은 서명한다는 것이고 호책을 따르며, 호책은 문호에 글을 쓰는 것이다.” (『說文解字』, 卷二: 冊部; 署也. 從戶. 冊. 戶冊者, 署門戶之文也.) / [清] 段玉裁, 『說文解字注』; 署門戶者. 秦書八體. 六曰署書. 蕭子良云. 署書. 漢高六年蕭何所定. 以題蒼龍. 白虎二闕.

이와 같이 신성한 위치에 거는 편액은 건물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건물의 격에 맞춰 단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작과 칠 기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궁궐건축 제도는 乾隆 원년 제정되어 포괄적 건축 규정을

方沔切. 古音在十二部.

47) 이 위치는 중국에서 “額枋”이라 불리는 곳으로, 흰 원을 그려 그 안에 오불을 안치해 장엄하는 영적인 공간이다.

표 8. 중국 편액의 종류와 위계 (『中國古建築油漆彩畫』, 50~51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종류	건물	테두리 장식	邊板	腹板	글	기타
1	斗子扁	宮殿, 宮門, 城樓	金線	銀朱紅	群靑	銅金字 / 鎏金 / 貼金	銅字
2	雕龍扁	北京天壇祈年殿, 故宮儲秀宮, 堆秀亭	浮雕雲龍 (5, 6, 7, 9조)	貼金	群靑	鎏金 / 金銅	銅字
3	平面扁	小式建築, 園林亭榭鋪面	없음	없음	墨 / 金	墨 / 金 / 印章: 紅	글자와 인장을 같은 색으로 할 때는 황토색
4	淸色扁	齋館의 外檐 및 실내 廳堂	透木紋, 古色蒼然	다양	다양	다양(金/綠/白/靑綠)	木刻字
5	花邊扁	실 내	조각된 花紋 (回紋, 万字紋)	貼金	墨 / 綠	金字(다수), 紅字	綠 바탕엔 대부분 金字
6	各種奇形扁	-	색채 풍부	다양	墨 / 紅 / 綠	金字	의미와 구체적 내용이 있음. 글자와 바탕색의 명확한 대비 (墨 바탕 紅字 불가능) 외형: 서책형, 부채형
7	紙絹扁	-	테두리가 좁다	장방형	종이 / 비단	서예가가 직접 쓴 글	테두리 목에만 단청

통해 장식을 제한했다.

편액 또한 건물의 격에 맞도록 단청하기 위해 다양한 칠 기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7>은 전장에서 조사한 사료의 편액과 현재 5대 궁궐에 현존하는 편액의 색상을 조사한 것이다.

유형 1은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사료로만 알 수 있는 유형으로, 靑 바탕에 金字편액이다. 이 편액은 조선의 正宮인 景福宮 勤政殿 편액에 사용했던 기록으로 볼 때 궁궐 편액 중 조선시대에 가장 격이 높았던 편액으로 추정된다. 유형 2는 紛 바탕에 靑字인 편액으로, 龍飛樓와 重光院, 奎章閣學士之署, 錫福軒, 壽康齋, 寄傲軒, 佑申門, 風月軒 등 임금의 어필편액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 유형 또한 격이 높다고 하겠다.

유형 3은 墨 바탕에 金字인 편액으로, 궁궐의 정전, 궁의 문루, 왕이 기거하는 당, 연회를 베푼 화려한 정자 등의 편액으로 격이 높은 편액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은 옷칠을 이용한 편액이 대부분으로 흑색 옷칠인 전칠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그중 인정전 편액은 19세기 초 사용된 역정칠편액으로, 옷칠보다 격이 낮은 칠이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제작 기술이 알려져 있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 4는 墨 바탕에 黃字인 편액으로 字劃에 석자황을 사용했는데, 墨 바탕에 金字와 비교하면 색상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싸고 아름답지 못해 金字에 비해 격이 낮은 문이나 각 등의 편액에 사용되었다. 유형 5인 墨 바탕에 紛字는 孝安殿, 孝禧殿 등 혼전과 文政殿 등 편전에 쓰였으나, 현황에서는 建春門, 神武門, 敦化門 등 궁성의 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유형 6은 紛 바탕에 墨字인 편액으로, 문헌에는 대부분 문에 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황에서는 비교적 격이 낮은 문과 궁궐 후원의 정자, 당 등 다양한 건물에 쓰였다. 유형 7은 綠 바탕에 紛字인 편액으로, 현황 중 觀瀾亭이 유일하다. 이 편액은 궁궐 후원의 정자에 걸린 나뭇잎 형태의 특수 편액이다. 유형 8은 현황에만 있는 유형으로, 궁궐에 있으나 임금이 遊息할 때 잠시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에 게시된 편액이다. 사대부가의 편액처럼 단지 紛으로 바탕을 칠하고 나무의 색보다 약간 진한 석간주 등으로 간단히 틀과 字劃을 채색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편액의 위계가 이러하다면, 중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편액의 양식과 종류는 <표 8>와 같이 표면 칠 기법에 따라 斗子扁, 雕龍扁, 平面扁, 淸色扁, 花邊扁, 各種奇形扁, 紙絹扁으로 나뉜다. 斗子扁은 宮殿, 宮門, 城樓 등에 사용되는 양식으로, 群靑 바탕에 金字이다. 雕龍扁은 北京天壇祈年殿, 故宮儲秀宮, 堆秀亭에 사용된 양식으로, 斗子扁과 바탕과 글의 색은 동일하나 斗子扁이 <그림 1>의 紫禁城 편액과 같이 금색 선만으로 장식했다면, 雕龍扁은 테두리 목에 雲龍을 5, 6, 7, 9조에 부조 방식으로 장식한 점이 다르다. 平面扁은 테두리 목이 없이 두꺼운 복판을 이용한 소박한 편액으로, 원림 정자 등 내부에 거는 편액이다. 淸色扁은 齋館의 外檐 및 실내 廳堂에 거는 편액으로, 복판과 테두리에 다양한 색이 사용된다. 花邊扁은 조각된 화려한 문양으로, 回紋, 万字紋이 사용되며 墨, 綠 등의 바탕에 金字가 주로 쓰인다. 各種奇形扁은

서책형, 부채형 등 다양한 의미와 내용이 있는 편액으로, 墨, 紅, 綠 등의 바탕에 金字가 주로 쓰인다. 그 외에 종이나 비단 위에 직접 글을 적어 간단히 테두리만 두른 紙絹扁이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편액의 종류는 조선의 편액과 대체로 일치한다.⁴⁸⁾ 그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편액은 綠과 靑을 바탕으로 사용한 편액이지만, 사료에는 이것에 대한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조선의 편액이 유형 면에서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기름을 사용한 유칠 제작 기법을 편액에 주로 사용하며, 판의 제작에도 회로 성형을 한 후 채색을 하는 기법을 고급 편액인 斗子扁과 雕龍扁에 사용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현재 조선시대 편액의 완전한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⁵⁰⁾

또 조선시대 편액 글자 틀의 제작 방식은 나무판에 직접 글자를 새기는 방식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위계에 따라 동으로 글자를 제작하거나, 나무로 제작하거나, 회를 조각하거나 쌓는 네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글자의 제작 방식은 銅金字가 가장 위계가 높은 斗子扁과 雕龍扁에 쓰였고, 그 외 편액에는 鑠金, 貼金이 字劃의 채색에 사용되었다. 글자의 형태는 銅字, 木刻字, 灰刻字가 있으며, 동자는 필획을 연결해 배면에서 처리한다. 木刻字는 淸色 편액 위의 글자에 주로 사용되며, 목재 바탕 위에 직접 새겨진다. 灰刻字는 회 위에 자형을 직접 새기는 것이다. 그 외에 灰堆字는 회를 쌓아 자본을 만든다.⁵¹⁾

48) 瀝靑漆을 하고 腹板에 흰 글을 쓴 煤屑字, 貝粉을 이용해 바탕을 하고 墨이나 靑으로 글을 적는 殼屑字, 墨 바탕에 粉이나 黃으로 글을 적어 넣은 堆灰字, 金を 붙이는 貼金字가 그것이다.

49) 일명, “一麻五灰工藝”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중국 고대건축 단청의 기본 가공 방법으로, 바탕을 고른 후 捉縫灰를 입히고 掃蕩灰를 바른 후 麻를 붙이고 壓麻灰로 골메움을 해 中灰, 細灰로 바탕을 성형한 후 마찰해 마무리하는 바탕 가공 기법을 말한다.

50) 邊精一, 『中國古建築油漆彩畫』, 中國建築工藝出版社, 2013, 50~55쪽 / 중국의 편액 제작은 서체를 전문적으로 베끼는 일, 글자를 조각하는 일, 칠을 하는 일로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담당하는 장인 집단이 있어 이를 八家로 불렀다고 한다. 만약 글자에 靑, 綠, 혹은 석탄을 이용한 煤屑字, 貝粉을 이용한 殼屑字, 朱를 이용한 堆灰字, 金を 붙이는 貼金字의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삼베를 입히고, 조각을 장식하고, 기름을 먹이고, 또 칠을 하거나, 또 광을 내는 일과 같이 20여 차례의 수많은 공정이 있었으며,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어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李德生·苑煥喬, 앞의 책, 2016, 146쪽)

51) 조선에서는 교착제로 阿膠와 法油, 漆을 주로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끈충의 배설물인 설탕, 유칠, 돼지피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칠 기법은 중국 江蘇省 지역 단청과 유사하다. 江蘇이 고온 건조한 기후인데 반해, 조선은 고온 다습해 동물성 교착제를 사용할 경우 건조 전 부패할 가능성이 크며, 동물성 재료는 도축을 해야 얻을 수 있어 생

이와 같은 중국의 자획 제작 방식이 사용된 편액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후기에는 옷칠을 고급 편액에 주로 사용해 왔으며, 검정 바탕의 역청칠편액도 더러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바탕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장을 하지 않거나 얇은 지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²⁾

5. 맺음말

본 논문은 문헌에 기록된 궁궐 편액을 대상으로 칠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조선시대 편액의 칠 기법을 분석하고, 편액이 어떻게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요약을 통해 논고를 끝내고자 한다.

첫째, 문헌에 기록된 칠 재료를 교착제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眞彩 기법·옷칠[漆] 기법·瀝靑漆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칠 기법은 바탕에서 마감층까지 다양한 재료로 복합적 칠 기술을 이용했다. 이를 안료와 교착제, 그리고 바탕 고르기의 재료를 분류하면, 眞彩 기법은 바탕칠로 胡粉을 전체에 도포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단청 기법과 거의 일치한다. 옷칠 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수많은 공정이 필요했으며, 그에 따라 眞漆匠·漆匠, 假漆匠·畫員 등 여러 공종의 장인들이 편액 단청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瀝靑漆편액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고 현재는 거의 사라진 조선의 칠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편액의 칠 기법은 위계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이것은 재료의 질, 다양한 공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 편액의 위계는 靑 바탕에 金字가 가장 격이 높은 정궁의 정전을 장식했으며, 墨 바탕에 金字가 그다음으로 궁궐의 정전 및 궁문, 왕이 거거하던 당, 연회

산력이 낮은 조선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재료였기 때문일 것이다. 江蘇省 지역은 기후가 온난 습윤하여 목재의 수축과 팽창의 폭이 커 두꺼운 바탕처리를 하는 북경의 칠 기법과 상이한 발달 과정을 거쳤다. 이 지역의 바탕처리는 목재의 틈에 油灰를 바른 후 평활하게 하고, 粉을 2회 퍼 바르거나 덮어씌우고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 목부를 완전히 희게 만든 후, 색을 입힌다. 이러한 채색은 내부 채색 부위에 주로 시행하였다. 江蘇省의 바탕칠 기법은 오래된 蘇州 지방의 단청 양식과도 유사하다.

52) 이 양식은 그중 『營造法式』에는 일부 남겨진 오래된 채화 기법을 볼 수 있어 그 지역만의 특징적 채화 기법이 오래전부터 발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특히 이 지역의 단청은 중국의 본토와 다른 단청의 발달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청말 태평천국의 난 이후에는 북방의 영향이 커져 單被灰의 얇은 바탕칠 기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탕층의 두께가 단청 연대 판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를 베꼈던 누각을 장식했다. 또 紛 바탕에 靑字 또한 어 필편액 등으로 격이 높은 것이었다. 墨 바탕에 金字는 대부분의 문루와 정자와 누각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墨 바탕에 黃字는 金字보다 격이 낮은 건물에 쓰였다.

墨 바탕에 紛字는 혼전이나 편전 등에 사용되었으며, 紛 바탕에 墨字는 비교적 격이 낮은 문과 궁궐 후원의 정자 등에 사용되었다. 또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綠 바탕에 紛字인 편액과 紛바탕에 석간주로 字를 넣은 사례가 현재 궁궐에 남아 있다.

또 조선후기에는 궁궐의 주요 정전에 옷칠편액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옷칠편액은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장 기법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칠 문화가 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청칠편액의 문헌 사례는 현재 인정전이 유일하나, 墨 바탕에 金字인 편액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편액에 대해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실물 편액의 칠 재료와 기법에 대해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과학적 정밀 조사를 통해 편액의 전반적인 칠 기법을 규명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高麗史節要』
2. 李尙迪, 『恩誦堂集』
3. 『錄勳都監儀軌』
4. 『儲承殿儀軌』
5. 『集祥殿修改都監儀軌』
6.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
7.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8.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9. 『西闕營建都監儀軌』
10.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1.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2.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3. 『明陵改修都監儀軌』
14. 『濬源殿眞殿重建都監儀軌』
15.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6. 『寧陵修改都監儀軌』
17. 『說文解字』
18. 徐兢, 『高麗圖經』
19. 『朝鮮王朝實錄』
20. 『大東野乘』, 『稗官雜記』

21. 『牧民心書』
22. 『湛軒書』
23. 『山林經濟』
24. 『常變通攷』
25. 『宋子大全』
26. 『湛軒書』
27. 『承政院日記』
28. 『宮闕志』
29. 段玉裁, 『說文解字注』
30. 龔德才·胡石·何偉俊, 『江南古建築 彩畫 保存技術 及 傳統工藝研究』, 文物出版社, 2013
31. 李德生·苑煥喬, 『烟畫老北京360行』, 北京大學出版社, 2016
32. 邊精一, 『中國古建築油漆彩畫』, 中國建築工藝出版社, 2013
33.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34. 세화편집부, 『화학대사전』, 세화, 2001
35. 이칠룡, 『漆工研究』, 미진사, 1984
36. 유장식, 『文字造形世界: 현대서각 이론과 기법』, 이화문화출판사, 2013
37. 역사건축기술연구소, 『궁궐현관 고증조사』, 문화재청, 2015
38. 구옥희, 『17세기 이후 궁궐단청기법의 재현을 위한 시험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접수(2017. 10. 14)

게재확정(2017. 11. 17)